

「別乾坤」을 중심으로 본 신여성의 복장에 관한 연구

김 희 정[†]

성신여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학과 강사

Study on the Attire of New Women Described 「Beol Geon Gon」

Hee-Jung Kim[†]

Lecturer, Dept. of Clothing & Textiles, Sungshin Women's University

(2003. 10. 21. 접수 : 2003. 11. 28.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spects of education, social activity, and sense of values in new women, categorizing the clothing habits into hair style, new modes and accessories on the basis of those, and to find out the influences of new women's attirement on clothing habit of general women, centering of 「Beol Geon Gon」 which made its first appearance in November 1926 and issued till June, 1934. First, new education became good opportunity to face and adopt new style of clothes. The school uniform of western style worn under the education system operated missionaries and clothes of returning students from studying abroad became a chance for general people to meet western clothes. Second, various style of western clothing was shown by enlargement of social activity area of new women. In the educational world and active careers such as doctor, journalist, women's libber, convenient clothing was required. The appearance of airwoman and driver showed trends that women's clothing was changing similar to men's clothing. Third, even general women started to adopt western clothes not to be old-fashioned as being threatened and weakened by the vision about marriage and love among new women, and participated in the trends.

Key words: attire(복장), Beol Geon Gon(별건곤), new women(신여성).

I. 서 론

현대가 시작될 무렵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두 개념이 있다면 하나는 새롭고 좋은 것과 낡고 나쁜 것이라는 개념이다. 즉, '서양=산업화=도시화=발전된=훌륭한 것'과 비교되는 '동양=비산업적=농촌의=저개발=가치 없는 것'이라는 표상체계가 우리의 현대화 과정에서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현대화 과정에서 등장한 신여성은 제1차 세계대

전과 러시아 혁명전후의 역사적 산물로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여성이 남성 대신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종래의 현모양처 여성과는 전혀 다른 사회적 인격체로 부상하였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신여성은 19세기말 이른바 개화기에 교육 받은 여성의 뒤를 이어 여성 스스로 여성교육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사회활동에 동참해 나가는 과정에서 성장한 여성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교육을 받은 여성들이 국내 여학교나 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와 우리나라에 하나의 사회적 범주로 등장한 것은 1920

[†] 교신저자 E-mail : heejee05@hanmail.net

년대였다.

본 연구는 양장이 개화기부터 도입되기 시작하여 1910년대를 거쳐 1920년, 1930년대에 유행하기까지 영향을 미친 신여성의 복장을 정리해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선 신여성 문화를 이루게 되는 교육, 사회활동, 가치관의 측면을 알아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탄생하게 되는 신여성의 의생활을 머리스타일, 신모드, 장신구로 나누어 정리한 후 신여성의 복장이 일반여성의 의생활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1926년 11월에 창간되어 1934년 6월 까지 발간된 「別乾坤」을 중심으로 당시 신여성들의 복장에 대한 100개의 논쟁기사와 화보를 살펴보는 문헌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제한점은 당시 신여성이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만큼 사회적인 반발이 컸으며 신여성의 복장을 묘사하는데 부정적인 시각이 많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객관적인 복장묘사에 어려움이 있는 듯하므로 이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II. 신문화가(1910~30년대)의 신여성 문화

우리 나라에서의 양장문화가 신여성에 의해 도입되고 유행하게 된 배경을 고찰하기 위해 신여성들의 교육과 사회활동, 달라진 가치관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신여성의 정의

신여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구에서 크게 유행했던 것이고 이를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비서구 국가들에서 지식인층을 중심으로 열광적으로 받아들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1911년 창간된 「청담」에 신여성론이 전개되기 시작하였고 당시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한국 유학생들도 이 사상에 감화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 그들이 유학에서 돌아온 1920년대 초부터 신여성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다.¹⁾

우리 나라에서도 1920년 「신여성」이라는 잡지가 출판되었을 정도로 이 용어는 사회적 관심을 얻었다. 신여성이라는 개념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였으며, 당시 우리사회에서는 신여성에 대한 개념과 범주는 논자에 따라 달라서 '자유주의의 신봉자', '급격한 사회변동 가운데 나타난 과도기적 산물', '사회구조적 개혁을 통한 여성해방주의자' 등으로 보는 시각도 있었다.²⁾

또한 1920~30년대에 신교육을 받은 세대이며 전통을 깨고 머리와 의상을 서구식으로 하고 다니는 여성을 가라키거나³⁾ 여자고보(女子高普) 실업학교 등 중등(中等)정도 및 그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와 중도 퇴학자를 가라키기도 하였다.⁴⁾

넓은 의미의 신여성을 다시 세분하여 보면 사회운동자와 부인운동가, 직업부인, 무직자(미스), 신가정(新家庭)부인, 여학생 등 크게 다섯 부류로 구분할 수 있다.⁵⁾

따라서 신여성의 범주를 규정해 보면 일차적으로 신여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교육의 유무와 관련되며, 사회의식의 유무로 기준을 삼거나, 서구양식을 따르는 외관에 기준을 둔 것으로 보인다.

2. 교육

개화의 물결로 여성의 의식과 생활에 변화를 가져온 이래로 선교사들을 통한 서구문명의 유입과 여성교육기관의 설립 등 큰 변화가 있었다.

신교육을 받은 평민층 여성들은 어느 계층보다도 해외유학의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외국선교사의 주선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1910년 이후 본격적으로 일본 유학이 전개되었는데 이는 제대로 체계를 갖춘 학교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그 이전에는 양반계층이 주류를 이뤘다면 1920년대로 가면서는 숫자도 늘고 점차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었다.

1932년 통계에 의하면 중등교육 이상의 출신자는

1) 최혜실, 신여성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서울: 생각의 나무, 2000), p. 165.

2) 박정애, "1910~1920년대 초반 여자 일본유학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3.

3) 대우학술총서, 한국사회의 구조론적 이해 (서울: 아르케, 1994), p. 156.

4) "기묘에선 신여성", 第一線, 1933년 2월, p. 14.

5) "女性恐怖時代", 別乾坤, 1930년 7월, p. 58.

998명이며 중도 퇴화자를 더한다면 천명이 넘을 듯하다.⁶⁾ 이 숫자는 전체 여성인구의 오천분에 일에 해당하지만 매년 1천명의 신여성이 새로 등장한다고 본다면 당시 상황에서 볼 때 결코 적은 수는 아니다.

당시 新·舊 여성의 구분은 순전히 학교 교육의 유무에 의한 것이고 지식과 교양의 정도가 기준이 된 것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舊여성 중에도 가정교육을 통하여 학문에 있어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에 못지 않은 경우도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여성의 경우는 '학력을 무기 삼아 가장 화려하고 안락한 생활을 꿈꾸려한다'는 표제하에 부유층의 첩도 불사하는 신여성을 비판하는 기사들도 자주 보도되었다.⁷⁾

이렇게 여학생들이 사회와 부조화되는 사치심과 허영심으로 사회분체가 된 것은 수도원감이 격리된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서양요리와 양요리교습, 비단실로 자수하기, 피아노 치기 등 유산계급의 호화로운 귀부인으로 길러졌기 때문이다.

3. 사회활동

1920년대는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들에 의한 문화활동, 사회활동이 전개되었는데 교육을 받은 여성이 가장 많이 진출한 분야는 교직이었다. 이는 개화와 함께 조직된 여성단체들이 무엇보다도 여성의 의식을 각성시키기 위한 교육사업에 역점을 두었기 때문이며, 정신여학교의 터전을 닦은 신마리아, 최초의 여학사 하란사 등이 대표적이다.

이후 계속하여 여교사 수가 증가하여 1938년에는 전체 교사중 14%가 여교사였음이 알려지고 있다.⁸⁾

한국사회에서 여의사 양성을 위한 근대의학교육이 시작된 것은 1890년경이며 1928년 경성여자의학강습소로 발전되어 여성을 위한 공식적인 의학교육기관으로 역할을 하였다.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터, 최초의 여성개업의 허영숙, 최초의 여성의학박사 손치정 등이 대표적이다.⁹⁾

당시 여성의 활동범위가 확대되어 영화배우로는 이월화, 소프라노 윤심덕, 약사 차순식, 기자 최은희, 비행사 권기옥, 교수 김합란 박사, 여운전수 장급산, 공장기사 최봉신 등이 '최초'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되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를 개척하였다.¹⁰⁾

또한 유교전통을 극복하고 기자로 활동한 인물로는 1920년 「신여자」를 발간한 김원주, 매일신보의 김명순, 조선일보의 최은희, 동아일보의 황신덕 등이 있다.

카페의 여급은 1920년대 직업부인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으며 여급의 학력은 대개는 보통학교 졸업생이었지만 고등보통학교 졸업생들도 여러 명 있었으며 유명한 여배우들이 여급을 하기도 했는데 버니스의 마담이었던 복혜숙을 비롯해 신일선, 김보신, 이명화, 김명순 등이 카페로 진출하였다.¹¹⁾

4. 가치관

일제시기는 전통과 근대의 두 문화가 충돌하고 힘을 겨루는 가운데 변화의 진동이 두드러진 시대였다. 근대적 요소 가운데 하나는 여학생, 여성노동자 등 전에 없던 사회계층이 형성된 점이었고 결혼문화의 측면에서 볼 때 여학생이나 여성노동자의 증가는 자유연애를 초래하였다.

일제시대에 전통적인 인습에 전면으로 도전한 신여성들은 자유로운 남녀교제와 연애, 결혼을 추구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1910년대 일본유학을 통해 자유주의 사조의 세례를 받고 여성의 성적해방을 중시하여 근대적인 실천으로 인식하였다.

1920년대 신여성의 결혼형태를 첩이 되는 경우, 후처로 가는 경우, 독신과 만혼의 경우로 나누고 있는데¹²⁾, 당시 신여성의 배우자가 될 만한 지식남성의 경우 대개는 조혼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다. 생활난으로 첩이 되는 신여성들은 경제능력이 없는 구시대의 여성을 희생시키는 이기적인 행동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6) "기르에선 신여성", *Op. cit.*, p. 14.

7) 김영덕, *한국여성사 개화가 1945*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3), p. 334.

8) 이효재, *한국의 여성운동 어젠다와 오늘* (서울: 정우사, 1996), p. 89.

9) 이배용,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 (서울: 청년사, 1999), p. 20.

10) 한국역사연구회,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2* (서울: 역사비평사, 2000), p. 231.

11) 동광, 1931년 7월, p. 64.

12) 박월미, "1920년대 여성해방의식과 지위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4), p. 49.

신여성들의 삶은 종래와 크게 달랐는데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은 여성의 성과 이름이 전통사회와 다르게 서구적 관습을 적극 수용한 것이다. 예를 들어 최초의 여학사 하난사는 남편 하상기의 성과 미국이름 낸시(Nancy)의 한자음을 더한 것이며 최초의 여의사 박에스터도 김점동이라는 본명을 버리고 남편의 성과 세례명을 합쳐 지은 것이다.¹³⁾

Ⅲ. 신여성성의 복식

일제시대에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반발하여 사치스러운 양장이나 일본 복장을 경계하면서 한복을 개량하여 착용할 것을 강조하는 분위기였으나 신여성들은 복식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보였으며 그들의 옷차림은 당대 여성의 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1. 머리스타일

1) 하사시카미(はさしかみ, 髷髪 pompadour)

하사시(はさし)란 ‘처마 끝에 다는 차양’이라는 뜻인데 머리모양이 이마에 차양을 단것과 같음을 나타내는 말로 일본에서는 메이지(明治)시대부터 다이세이(大正)시대에 걸쳐 유행한 머리형으로 일본의 여배우 가와가미(川上貞奴)가 했던 것이 신여성 사이에서 유행했으며¹⁴⁾ 연예인을 모방하는 풍조에 의해 한국의 유학생들도 유행을 따랐다.

1907년 일본 동경에서 돌아온 최활란은 하사시카미 헤어스타일에 짧은 검정색 통치마를 입고 귀국해 화제를 불러 일으켰으며 여학생들과 일부 여성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대학생들은 머리를 틀어 엮었는데 귀밑머리를 치켜올려 빗어서 하사시카미를 하되 머리 꼭대기에 큰 미봉(리본)을 매는 사람들도 있었다.¹⁵⁾ <그림 1>은 이화학당 졸업생의 모습인데 이들의 머리 스타일 속에도 하사시카미 스타일이 보여진다.



<그림 1> 이화학당졸업생들, 1911.

(한국사건사, p. 127)

그런데 이 하사시카미는 얼마 지나지 않아 없어지고 옆 가르마를 타고 머리 뒤에 넓적하게 틀어 붙이는 트레머리가 생겼는데 넓적할수록 보기 좋다고 하여 속에 머리심을 넣고 길에만 머리를 입혀서 크게 틀었다.

트레머리는 독립운동가였던 김마리아의 최수복차림의 사진에서도 보여진다(그림 2).

「동명(東明)」(1922)에 실린 글을 보면 당시 여학생들의 차림을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요사이 종로에 나가보면 것빛 같은 뽀얀 숙고사 저고리에 무릎까지



<그림 2> 김마리아의 머리스타일, 1919.

(한국사건사, p. 158)

13) 이배용, *Op. cit.*, p. 74.

14) 고부자, *우리생활 100년·웃* (서울: 현암사, 2001), p. 78.

田中千代, *服飾事典*, (東京: 同文書院, 1977), p. 681.

15) 김향란, "개화기 여자머리양식과 제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p. 26.

오른 검정 치마, 어푸수수수한 틀에머리(트레머리)에 굵 높은 노랑 깃도 구두여서 신사양반에게는 눈의 노리개지만 시골사람에게는 마주 쳐다볼 수조차 없다. 틀에머리=여학생=미인이라는 인식으로 인하여 조선식 미인인 기생들도 덩달아 여학생의 탈을 쓰려고 한다.”¹⁶⁾

이렇게 트레머리면 여학생으로 생각하고 여학생이면 미인이라 하여 값어치가 오르기 때문에 기생들도 덩달아 학생모양을 내었다.

2) 단발머리

하사시가미가 완전히 사라지고 1920년대에 일본에서 들어온 단발머리 스타일은 신여성들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으며¹⁷⁾, 1930년대에 널리 유행하였다.

처음 단발을 실천한 여성은 강향란(강석자)이라는 기생이었으며 이소춘, 박연화, 강명화, 김금옥, 신옥도 등이 뒤를 이었는데¹⁸⁾ 기생들의 단발은 그들이 새로운 문물을 가장 먼저 받아들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지만 사회적으로는 용납되지 않아 ‘단발랑(斷髮娘)’으로 불리우며 세간의 이목을 받으며 물의를 일으켰다.

여성의 단발은 당시 남성들에 의해서 매우 비판적으로 받아들여졌는데 기생들은 자신의 정절을 표현하기 위해 단발을 감행하기도 하고, 허정숙과 주세죽과 같은 사회주의자들은 구제도에 대항하는 투사적인 의지에서 단발을 감행하였다. 여자 비행사 이정화는 12세부터 24세까지 비행을 했는데 집에서 비행사를 그만두고 시집가라는 성화에 스스로 맹세하기 위해 단발을 감행하기도 하였다.

한편 실질적인 이유, 즉 간편한 생활 때문에 단발을 한 이로는 동아일보의 기자 최원순과 여의사 현덕신을 들 수 있다.

‘여자단발이 가능한가 불가능가’라는 토론에서 김활란은 “첫째, 의복이 더러워지거나 냄새가 나지 않아

위생상으로 좋고 둘째, 시간상으로 경제적인데 여자의 일생을 70으로 볼 때 30년을 미리 빗기에 보낸다고 하는 풍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미적으로 보아도 좋고 넷째, 세계적인 대세(大勢)에 순응하는 것이며 다섯째, 여성해방의 유일한 조건이다.”¹⁹⁾ 라고 하며 단발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여성의 단발은 미국의 무성영화가 퍼뜨린 것으로 귀가 가릴 정도로 짧게 자르고 머리 가운데서 가르마를 내 양편으로 빗어 넘긴 모습이었으며²⁰⁾ 당시에는 호리존탈, 싱글, 터취컷, 뽀이쉬 뺨 등 네가지 종류가 있었다.²¹⁾

이렇듯 단발은 정절을 표현하거나 구제도에 대항하고 자신의 의지를 맹세하려는 의도 외에도 실질적인 편리함으로 인해 그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였다.

3) 퍼마넨트 (Permanent)

우리나라에 파마가 첫선을 보인 것은 1920년대로 일본에서 돌아온 오염주가 화신 백화점에 미장원을 개업하면서 부터이다. 처음엔 쇠에 석탄불을 담고 하였기 때문에 ‘불파마’라고 하였으며 전기로 지진다고 해서 전발(電髮)이라고도 하였다. 당시 처음 파마를 한 여성으로 여러 명이 거론되지만 한가지 공통점은 이른바 신여성들로서 사회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였다.

영화가 미국에서 수입되자 여성의 두발에도 서양의 영향이 나타나며 인두로 곡선을 만드는 마르셀 웨이브(marcel wave)나 퍼마넨트 웨이브가 더해지게 되었다.

당시 첨단 유행을 이끌었던 예술가들의 머리에서도 웨이브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림 3>에서 보이는 토월회 무용부원의 머리에서는 짧은 단발과 단발에 웨이브로 멋을 부린 모습이 보인다.

한편 핀컬(pin curls)은 1930년대 이후에 여학생과 신여성 사이에서 유행한 버리스타일로 머리 아래 무

16) 東明, 1922년 10월 23일, p. 11.

17) 유효순, 최혜을, *복식문화사* (서울: 신광출판사, 2000), p. 215.

18) 주강현, *근대 100년 민속풍물의 변화와 전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1995), p. 171.

별건곤, 1927년 11월, p. 75.

19) 별건곤, 1929년 1월, p. 128.

20) 김은신, *한국최초101장면* (서울: 가람기획, 1999), p. 282.

21) 오한생, “斷髮是非論”, *신동아*, 1932년 8월, p. 92.



〈그림 3〉 토월회 무용부원, 1929.
(별건곤, 1929. 12, p. 3)

분을 나선형으로 돌리고 핀을 이용하여 일시적인 웨이브를 만든 것으로 머리를 감은 후에 웨이브는 사라지는 것이다.²²⁾

이외에 소도마끼(そとまき)와 우찌마끼(うちまき)가 있는데 소도마끼는 1940년경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주로 한 머리로 어깨 정도의 머리길이에 보통 가르마 없이 뒤로 빗어 넘겨 정수리는 부풀리고 머리끝의 컬이 밖으로 말리게 한 모양이고, 우찌마끼는 정수리는 높게 부풀리고 머리끝의 컬이 머리 안쪽으로 말리게 한 것이다.

2. 신모드

1) 1900~20년대의 양장 교복

처음으로 양장교복을 입은 학교는 진명 여학교로 1907년 여름에 모자를 쓰고 양장에 구두를 신었는데 옷은 지금의 간호원복과 비슷하며 자주빛 셔저지(serge) 옷감으로 칼라를 뿔뿔이 세운 원피스였다.

또한 숙명여학교에서 1907년 착용한 양장교복은 유럽식 스타일로 자주색 원피스 드레스와 분홍색으로 안을 낸²³⁾ 챙이 넓은 브리머 캡(Brimmer cap)형태의 모자로 앞부분을 올려 쓰고 있다.

1911년 농구가 이화학당에 처음 소개되었고 1913년에는 정구가 들어왔으며 이어 배구와 야구가 들어오는 등 여성체육의 보편화로 각 여학교에는 여러

종류의 스포츠웨어가 소개되었는데 정구복, 야구복, 기계 체조복 등이 있었고 대부분은 흰색 블라우스에 검정 블루머나 스커트차림이었다.

한편 1929년 여자체육회가 조직되었으며, 여성들의 스포츠웨어도 눈에 띄게 보이는데 〈그림 4〉는 1928년 정구대회 우승팀의 모습으로 세일러 칼라의 블라우스에 짧은 주름치마를 입고 헤어밴드와 스카프를 맨 모습이 산뜻해 보인다.

한편 개량한복은 통치마를 출현시켜 여학생과 신여성 사이에서 유행되었는데 짧은 통치마는 경기여고의 전신인 한성고등여학교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통 무릎 길이로 짧았으며 양장의 플리츠처럼 주름을 넓게 잡은 형태였다.

2) 1920~30년대 신여성의 유행복식

「별건곤」에 의하면 신여성들의 복장은 몹시 화려하고 호사스러우며 경쾌한 세상의 옷과 긴 실크 스타킹, 머리는 옛날 예술가들 모양으로 커트를 하였으며 검정색 비둘기가 땅으로 기는 듯한 움푹하고 뾰족한 구두에 붉은 연지를 칠한 얼굴은 가름하고 동그스름한 형이 많았다고 한다.²⁴⁾



〈그림 4〉 정구대회 우승팀의 유니폼, 1928.
(별건곤, 1928. 7, p. 1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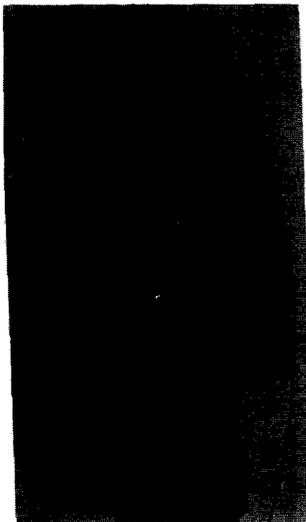
22) 김향란, *Op. cit.*, p. 31.

23) 현대패션 100년 편찬위원회, *현대패션 1900~2000* (서울: 교문사, 2002). p. 49.

24) 별건곤, 1927년 12월, p. 115.

각 계절마다 유행에 민감함을 보이는데 당시 패션으로 흰 저고리와 부를 아래로 내려오는 치마에 하이힐을 신은 여학생(그림 5)과 양산을 걸들인 양장 부인의 외출복과 '세루(serge)치마' 혹은 '아사나 포라치마'와 '깃도(kid)구두'가 유행했으며, 같은 해 겨울에는 "요사이 서울의 여자들은 어찌 그리 색을 좋아하는지 우산도 홍우산(紅雨傘)을 바치고 치마는 아주 셋 파관색이나 미색을 많이 입어 '베추벌레', '빈대갈보'라는 별명을 들어가면서도 색상이 있는 것을 착용한다"²⁵⁾고 하여 여성의 의상이 흰색과 검정색의 단순함에서 벗어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1930년 봄의 풍경으로 포목점에는 분홍, 옥색 등 연한 색의 포목, 양복점에는 잿빛, 낙타빛의 양복, 패물점에는 금, 은 비녀 대신 청색의 비취비녀로 봄소식을 전하고 있으며²⁶⁾ 가을에는 연갈색으로 치마 빛이 달라졌으며 서울거리에 나타난 신여성 중에는 현란한 색상과 문양의 양비단, 육색(肉色)의 굵



〈그림 5〉 학교통학복, 1928.
(별건곤, 1928. 2, p. 1)

굵은 구두, 비스코스 실크 스타킹, 커다란 핸드백, 두 줄로 땀 짙은 머리에 흑공단 리본으로 장식한 모습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하였다.²⁷⁾

1932년 11월호 「동광」에는 모던 여학생의 차림새를 "치마는 짧지만 구두는 크지요. 스포츠맨 슈즈랍니다. 구두창은 '그리퍼'(creeper, 미끄럼방지용의 고무창)이기에 다닐 때 소리도 안나지요."라고 묘사하고 있어²⁸⁾ 당시 젊은 여성의 치마길이가 짧은 것이 관심의 초점이 되었으며 캐주얼한 정장차림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저고리는 더욱 짧아져 거드랑이 바로 밑까지 올라가고 가지각색의 치마는 엄청나게 짧아 걷는 모습이 마치 길거리에서 댄스를 하는 듯 하거나 반대로 발꿈치까지 오는 긴 치마를 입고 걷는 모습이 눈에 거슬리는 모습이 되기도 했다.

한편 외국의 직물을 선호하여 여러 가지 직물이 수입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모직류는 양복의 대유행과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지 못하는 이유로 1919년 1,007,013원이던 것이 1925년에는 5,651,794원으로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²⁹⁾

당시에는 인조견사공장도 없던 처지지만 비단을 선호하던 신여성들 사이에서는 1척(尺)에 15전 짜리 옥양목과 같은 가격의 인조견이 유행하여 '인조견의 범람시대'가 되었으며 거리가 온통 번쩍거렸다.³⁰⁾ 비싼 비단으로 옷을 해 입지 못했던 사람들은 싸가 격이면서 비단 같은 광택을 지닌 인조견을 선호하였는데 인조견은 얇아서 햇빛 같은 광선이 비취면 신체의 실루엣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20~30년대 여성의 양장차림을 보면 블라우스에 스커트가 기본이었으며 재킷과 코트, 스웨터도 등장하였으며 정장을 하는 경우에는 원피스나 테일러드 투피스, 플리츠 스커트와 액세서리로 스카프, 장갑, 서양모자, 망토를 입었다(그림 6, 7).

'여학생 유인단 탐사기'에 의하면 "망토는 시대에 뒤졌으니 벗어버리고 정자옥(丁字屋)에 가서 외투를 맞추자"³¹⁾라고 밝히고 있어 당시는 망토보다는 서양

25) 별건곤, 1928년 7월, p. 105. 별건곤, 1928년 12월, p. 150.
26) 별건곤, 1930년 5월, p. 116.
27) 별건곤, 1930년 11월, p. 92.
28) 김진송, 서울에 딱스홀을 許하라 (서울: 현실문화연구, 1999), p. 316.
29) "工業界十年," 별건곤, 1930년 1월, p. 24.
30) "誌上工場 合成金・人造絹," 별건곤, 1931년 1월, p. 108.
31) 별건곤, 1927년 3월, p. 83.



〈그림 6〉 이화전문학교 교수진, 1936.
(학교중이 땡땡땡, p. 91)



〈그림 7〉 무용가 최승희, 1930.
(한국사전사, p. 248)

형 외투를 더 앞서가는 유행으로 본 듯하다.

한편 양장과 함께 등장하여 여학생 사이에서 밝고 열은 색상의 솔이 유행하였는데 짧은이들의 것으로는 화초모양이면서 입체적인데 두터운 것이 새로운 경향이었다. 옷감으로는 레이스가 유행하였으며 방한용과 장식용으로 커다란 솔이 애용되었다(그림 12).

3. 장신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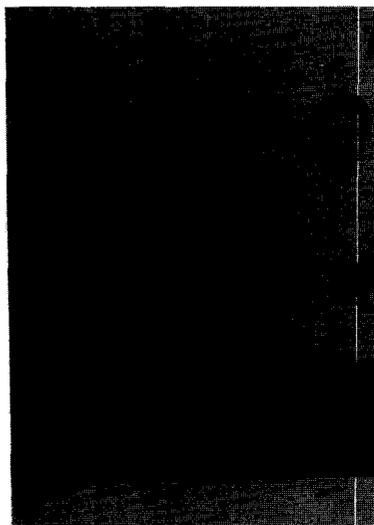
1) 안경 및 시계와 모자

우리나라에서 안경전문점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20년 4월경인데 당시 안경은 일종의 액세서리였다. 이른바 개화의 상징물로서 권위를 나타냈으며, 안경을 착용하고 있으면 지식층으로 보였고 인품도 남달라 보인다고 하여 눈이 나쁘지 않은 사람도 안경을 쓰고 다녔다.

이렇게 안경은 ‘공부하는 여성’의 면모를 드러내는 효과적인 장신구여서 신여성들이 착용했는데 김마리아, 황에스터, 김일엽 등은 당시에 드물게 안경 쓴 여성이었다(그림 8).

당시 여학생은 빈 자리를 두고도 전차에서 앉기를 싫어했는데³²⁾ 그 이유는 곱게 다려 입은 스커트가 구겨질 염려도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이유는 흰 팔에 찬 18금 팔목시계 때문이었다. 어렵게 마련한 20원짜리 금시계를 소매 속에 감추어 두기가 싫어서 팔을 뻗어 고리를 잡을 만큼 금시계의 유부는 여학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었다.

모자는 여성의 이용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다루는 곳 없이 남성 것과 함께 제작되었



〈그림 8〉 여성운동가 고헥경 박사, 1930년대.
(재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p. 177)

32) 별간곤, 1927년 12월, p. 79.

으나 1906년 서울에서 어홍래가 여모제조회사(女帽製造會社)의 설립을 인가 받고 점차 활성화되기 시작했다.³³⁾

모자의 형태는 박애스터가 썼던 카노티에(canotier)와 고순영이나 윤고려가 썼던 카프린(capeline), 단발머리에 어울리는 크로쉐(cloche) 등이 있으며 모양도 '타톨리안본형', '테라이본형' 등 형태의 구분이 생길 만큼 다양해졌다(그림 9).

1920년 동아일보에 실린 모자광고에는³⁴⁾ 남자들의 파나마 모자를 비롯하여 꽃이나 리본장식이 있고 모자의 브림이 아래로 향한 머슈룸 햇(mushroom hat)

이나 스트로 햇(straw hat)형태가 많이 보이며 모자의 가격은 2원 50전부터 29원까지 다양하다.

2) 신발

동아일보 1920년 7월에 게재된 광고 중에는 편리화(便利靴) 광고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굽이 있는 고무신의 형태이며 가격은 3원 50전에서 7원까지 있었다.

1919년경에 처음 들어온 고무신은 1930년에는 하루 종일 종로거리에서 있어도 짙신 신은 사람을 몇 사람 만나기가 어려울 만큼 고무신을 신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 1년의 소비량이 560만원에 이르렀다.³⁵⁾

〈그림 10〉은 독미식(獨美式)양화의 광고로 리본 장식이 있는 중간 굽 정도의 여성구두들을 볼 수 있다. 당시는 앞부분이 납작한 펌프스를 일상적으로 착용하였는데 중간굽 높이에 대부분 발등 위에 끈을 달았다.

구두는 신여성의 필수 장신구였는데 하얀 저고리에 종아리까지 내려오는 검정치마를 입은 여학생들도 발에는 으레 구두를 신고 있으며 심지어 임신부들도 굽이 있는 신발을 신고 다녔다. 그래서 고무신을 신고서 길을 걸을 때도 구두를 신고 걷는 듯이 발 뒷꿈치를 치켜들고 걸음으로서 항상 구두만 신고 있는 것 같이 가장하기도 하였다.

1920년대 후기에 구두들이 부쩍 유행하였는데 처음 나온 구두는 끈을 좌우로 열기설기 없애는 목이 긴 '목구두'라는 것이었고 이것이 없어진 후에는



〈그림 9〉 16세 소녀 최승희의 모자, 1926.
(출처는 최승희, p. 31)



〈그림 10〉 여성양화광고, 1920.

(동아일보 1920. 7. p. 16)

33) 고부자, *Op. cit.*, p. 85.

34) 동아일보, 1920년 7월 23일, p. 20.

35) "工業界十年," 별건본, 1930년 1월, p. 25.

단화로 바뀌었다.

1930년대에 들어 이화학생들이 신던 단화에는 앞 부리에다 꽃무늬를 파고 비단리본으로 끈을 하였으며 간단하게 매어서 구두 앞 등에 리본귀를 늘어뜨리는 것이 한창 유행했는데 이 구두는 굽은 있지만 중힐보다 낮은 걸기 좋은 넓은 것이었다고 한다.³⁶⁾

여기자 최은희는 쌀 한 가마에 5원이 채 안될 때 17원 짜리 악어가죽 구두에 5원어치 보석을 박아 신기도 하여 장안의 멋쟁이 기자로 통했지만³⁷⁾ 당시 구두는 비싼 가격 때문에 신여성이 사치를 한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다.

3) 가방과 우산

의복이 서양화되면서 1920년대 후반에 이르러 커다란 핸드백을 든 여성의 모습이 새로운 풍속도로 등장하였으며 1930년대에는 정착되어 크기와 모양이 다양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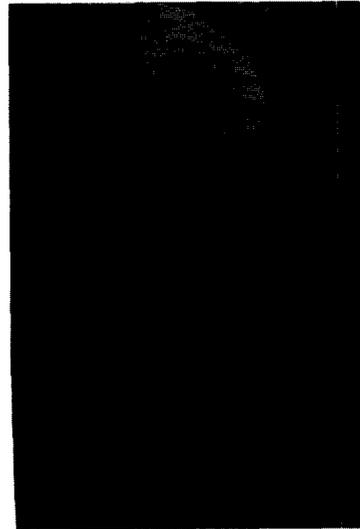
처음에는 지금의 쇼핑백처럼 단순한 형태였으나 유행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모양의 핸드백이 소개되었다.

우산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을 막는다고 생각하여 거부감이 심했는데,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다니던 여학생들이 내외용으로 가지고 다니기 시작한 이후로는 널리 퍼져³⁸⁾ 여성들 사이에 하나의 멋이 되었다. 당시 여염부인은 재회색, 여학생들은 검은색과 검은색에 무늬가 있거나 수놓은 것을 쓰고 다녔다.

1910년 전후 양산의 보급이 크게 증대되었고 1911년 무역수입액 908,245원 중에 우산 수입액이 무려 13,405원이었다고³⁹⁾ 하므로 당시 우산 수요가 얼마나 많았는지 짐작할 수 있다.

부인들 사이에서 유행되는 청우(晴雨)겸용 양산은 종래의 무지와 출간 것 외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으며 옷감은 호박지이며 핸드백 안에 넣어서 가지고 다니기 편하도록 된 것도 있었다(그림 11).

〈표 1〉은 신여성의 모드를 머리와 모자, 블라우스, 스커트, 드레스, 재킷과 외투, 신발, 기타의 항목



〈그림 11〉 의복차랑, 1928.

(별건곤, 1928. 2, p. 2)



〈그림 12〉 고려여자관 학생, 1929.

(학교종이 멍멍멍, p. 47)

으로 나눠서 정리한 것이다.

IV. 신여성의 복장이 의생활에 미친 영향

서양복은 1920년대가 되면서 우리의 의생활 문화 속에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는데 패션 리더로 앞선 신여성은 사회 곳곳에서 제 몫을 찾아 일하게 되었

36) 김영덕, *Op. cit.*, p. 279.

37) 이배용, *Op. cit.*, p. 209.

38) 김진섭,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은 우리문화이야기* (서울: 초당, 2001), p. 191.

39) 고부자, *Op. cit.*, p. 85.

〈표 1〉 신여성의 신모드

	헤어스타일과 모자	상의	하의	원피스 드레스	재킷과 코트	신발	기타
1910년대	퐁파두르 헤어스타일 (하사시가미) 쪽머리 챙머리 땡아 늘인 머리 트레머리 왼쪽가르마 블리머캡	긴 저고리 스탠드칼라 부폰 소매	짧은 감정 동치마 롱 플레어 A라인	자주색 (교복) 깁슨 걸 스타일	두루마기 테일러드 칼라	검정구두	검정우산 핸드백 교무신 운동복 반양장
1920년대	단발 댕기머리 트레머리 애교머리 파마넌트 크로쉐 카프린 머슈룸 햇 스트로 햇	루바시카식 오버블라우스 튜닉스타일 벨슬리브 비숍슬리브 라운드넥 개량적삼	무릎길이 타이트 플리츠 개더	보이쉬 스타일 짧은 길이 직선실루엣	망토 케이프 단순한 스타일 세일러칼라 오브롱칼라 솔칼라 테일러드 칼라 재킷 볼레로 재킷 스웨터	펌프스 샌들 경계화 편리화 경편화 양가죽 구두 옥스퍼드 슈즈 복구두 타운부츠	플래퍼목 털실목도리 양말 해수욕복 스포츠복 손목시계 핸드백 홍우산 안경 모직대유행
1930년대	단발 퍼머넌트 핀컬 베레모 카프린 티롤리안 테라이 비로도모자	튜닉형 플랫칼라 보우타이 세일러칼라 백색셔츠	플레어 세미타이트 플리츠 점퍼스커트 낙타빛 스커트 검정색 블루머	허리벨트 있는 스타일 간단복	세퍼레이트 슈즈 스포티코트 테일러드 재킷 직선실루엣 코트	리본장식된 단화 로우힐 워킹 슈즈 운동화 굽 낮은 검정구두 비스코스 실크스타킹 칠피구두	레이스양산 여우목도리 스카프 솔 핸드백 복걸이 백금반지 니트웨어 백색면사포

으며 그들의 달라진 옷차림이 새로운 유행과 패션의 모델이 되었다.

이렇게 초기의 양장 착용은 유학생 출신의 신여성들로부터 시작되었지만 1920년 이후에는 여학생이나 사무원, 여교사 등 평범한 일반 여성들에게까지 확대되었다.

신문화기에 유행의 리더라면 아무래도 신여성과 기생을 들이야 할 것이다. 즉 화류계의 유행과 여학

교 출신의 젊은 여성의 유행이 대립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배우와 직업부인은 신여성의 유행을 쫓고 마나님과 구식부인은 기생의 유행을 쫓게 된 것이다.

여학생들의 옷차림은 당시 남성들에게 욕망을 일으키는 성적 매개물이어서 기생들은 학생도 아니면서 여학생 흉내를 자주 내곤 했는데 이렇게 여학생 복장을 한 여성을 '밀가루'라고 하여 걸포장만 유사

한 상품욕 조심하라는 뜻을 담기도 하였다.

1920년대 말에 서울거리에 등장한 '모던 걸'은 양장을 했으며, 단발에 반짝이는 백 구두나 뽕족구두를 신고 다녀 길가는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당시 모던 걸은 험령하고 긴 오버블라우스인 러시아산 '루바스키(루바시카, Rubashka)'를 입고 미리를 승려처럼 꾸미기도 하였다.

또한 투사적 의지이전, 전통에 대한 반발이전, 정절의 증명이전, 생활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전 단발은 당시 여성들에게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하는 사회에 대한 도전이요, 반항이었으며 이런 용기 있는 행동을 여성 스스로는 문물과 생활양식의 진화의 결과로 자부할만한 일이었다.

양풍(洋風)은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앞서 가는 모습으로 또는 기이한 모습으로 비쳐졌지만 비판적인 안목을 지닌 사람들에게는 곧게 비쳐지지 않아 '열개화꾼'으로 불리거나 '전환기가 만들어낸 퇴역적 부산물들'로 보이기조차 하였다. 특히 서양물을 먹은 사람들을 일컬어 '양행꾼'이라고 하였다.

신여성은 구여성들에게 '양복강이', '몽당치마', '히사사가미'라고 불리우며 조소의 대상이 되었으며 신문과 잡지에서 그런 비판의 소리를 자주 실어 경종을 울렸다. 모던걸이라는 미명아래 서양풍과 일본풍에 물들어가고 있는 당시 한국의 여성들을 '요괴들의 세상'이나 '삼종들의 군무'나 '무위도식군의 가장 행렬'이니 하는 문구로 일침을 가하고자 하였다.

결국 짧아진 치마나 양산, 하이힐, 핸드백, 단발머리 같은 아이템은 1920년대 중반의 신여성의 상징물로 정착되었으며 이들 신여성은 서구에서 유행하는 품목의 정보를 얻어 이를 한국에 도입하는 가장 빠른 정보통 역할을 했다.

특히 핸드백이나 손목시계는 신여성의 선도로 유행되었는데 이런 장신구는 과시적인 성격이 강하여 사치와 허영심을 조장하였다.

한편 높은 굽의 구두는 여성해방의 상징이라는 시각도 있으나 남성들에게 있어서 여성의 구두는 드러난 종아리, 랩시 있는 구두의 굽에 시선을 보냄으로서 근대여성의 새로운 성적 매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렇게 유행을 몰고 온 모던 바람은 신여성들을 시대의 첨단에 서도록 했지만 단순히 거리의 패션을

뒤바꾼 것만은 아니었다. 이들의 등장은 퇴폐적인 문화로 불리는 감각적인 요소를 일상생활 속에 파고들게 하였다.

이렇게 된 배경 중에는 일제에 대한 1919년 만세사건이후 관립여학교(官立女學校)에서 여학생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도록 현모양처주의(賢母良妻主義)에다 머리에 기름칠하고 얼굴에 분바르는 유두분면주의(油頭粉面主義)를 섞어서 서양여자 같은 미인주의인 신구화미인주의(新歐化美人主義)를 만들어낸 것에도 영향이 있다고 보여진다.

우리 나라의 신여성에 의한 양장의 도입은 어찌든 특수계층의 신분적 과시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졌다고 보여지지만 의복에서 남녀의 성 차이를 줄였으며 일반 평범한 여성에게도 양장을 유행시키는데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다.

V. 결 론

신여성이 등장하게된 배경과 그들의 특징을 교육, 사회활동, 가치관으로 나눠 살펴보았으며 그 각각이 복식과 일정한 연관성을 지니며 신여성의 독특한 모드를 발생시키고 유행을 선도하게 된 것을 보았다.

첫째, 새로운 교육은 새로운 의복을 접하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적절한 계기가 되었는데 일본이나 미국 등지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유학생들의 옷차림이나 국내에서 선교사들에 의해 교육되는 제도하에서 입게 된 서양복 스타일의 교복은 국내의 일반인들이 양장을 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둘째, 신여성들의 사회활동 영역의 확대로 다양한 양장 스타일이 선보이게 되는데 신식교육을 하는 교단에서는 물론이고 의사나 기자, 여성해방운동주의 자들과 같이 활동성을 요구하는 직업의 경우 간편한 복장으로서의 개량이 요구되어 긴 저고리에 짧은 통치마가 등장하게 되었으며 여자 비행사나 운전 기사의 등장은 여성복이 사회화되고 남성복화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셋째, 신여성의 결혼관이나 연애관에 위축되고 위협받게 된 구여성까지도 신여성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서구화된 양장을 받아들여지게 되고 유행에 동참하게 되었다.

이는 정통성이 새로운 비전통성과 충돌하는 과정

에서 가치관이 바뀌면서 새로운 것을 좇는 것이 현대화라고 생각한 것이다.

치마 저고리에서 블라우스와 양치마로, 땡은 머리카락이나 쪽진 머리에서 단발이나 퍼머한 머리로의 변화, 버선발과 고무신에서 스타킹과 하이힐로의 변화는 다만 옷차림새의 변화만이 아니라 그 옷차림새를 지향하는 의식과 생활의 변화자체를 의미한다.

시대의 첨단을 걷는 신여성들은 새로운 스타일을 찾고 흡수하는데 더욱 적극적이어서 우선 쓰개치마를 벗어 던진 후 유행에 따라 머리모양의 다양한 변화를 겪었고 의복에서 양장을 택하는 이가 늘어나 그 때마다의 유행을 쫓기에 바빴다.

그리하여 양장미인이니 단발미인이니 하는 말이 나왔고 모던 걸은 신여성의 멋쟁이를 칭한 것이기도 하거나 단발미인과 모던 걸이 그 시대에는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서양 여성복의 수용과 전파가 신여성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볼 때 교육을 통한 가치관의 변화로 새로운 양장문화를 준비하는 계기가 있었으며, 사회활동에 대한 욕구가 충분히 잠재되어 있었으며 지속적인 교육과 계몽의 힘으로 일반 여성들의 복장에도 영향을 미쳐 여러 가지 부작용은 있었지만 신여성들에 의해 성공적인 양장도입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고부자 (2001). *우리생활 100년*. 옷. 서울: 현암사.
 김메리 (1996). *학교종이 땡땡땡*. 서울: 현대미술사.
 김영덕 (1993). *한국여성사 개화기 1945*.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김은신 (1999). *한국최초101 장면*. 서울: 가람기획.
 김진섭 (2001).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은 우리문화이야기*. 서울: 초당.
 김진송 (1999). *서울에 땡스쿨을許하라*. 서울: 현실문화연구.
 김향란 (2002). "개화기 여자머리양식과 재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우학술총서 (1994). *한국사회의 구조론적 이해*. 서울: 아르케.

동광 (1931. 7). 서울: 동광사.
 東明 (1922. 9~1923. 6). 京城: 東明社.
 동아일보, 축쇄판 (1920. 7~9). 서울: 동아일보사.
 박원미 (1984). "1920년대 여성해방의식과 지위변화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정애 (1999). "1910-1920년대 초반 여자 일본유학생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別乾坤 (1926. 11~12). 서울: 개벽사.
 別乾坤 (1927. 1~12). 서울: 개벽사.
 別乾坤 (1928. 1~12). 서울: 개벽사.
 別乾坤 (1929. 1~12). 서울: 개벽사.
 別乾坤 (1930. 1~12). 서울: 개벽사.
 別乾坤 (1931. 1~12). 서울: 개벽사.
 別乾坤 (1932. 1~11). 서울: 개벽사.
 別乾坤 (1933. 1~11). 서울: 개벽사.
 別乾坤 (1934. 1~6). 서울: 개벽사.
 신동아 (1932. 8). 단발시비론. 서울: 신동아.
 이베용 (1999).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 서울: 청년사.
 이효재 (1996). *한국의 여성운동 어제와 오늘*. 서울: 정우사.
 유효순, 최혜율 (2000). *복식문화사*. 서울: 신광출판사.
 第一線 (1932~1933). 월간지
 제주도 여성특별 위원회 (2001).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주강현 (1995). *근대 100년 민속풍물의 변화와 전개*.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최혜실 (2000). *신여성은 무엇을 꿈꾸었는가*. 서울: 생각의 나무.
 한국역사연구회 (1999).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1*. 서울: 역사비평사.
 한국역사연구회 (2000). *우리는 지난 100년 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2*. 서울: 역사비평사
 현대패션 100년 편찬위원회 (2002). *현대패션 1900-2000*. 서울: 교문사.
 服裝文化協會 (1981). *服裝大百科事典 -上-*. 東京: 文化出版局.
 田中千代 (1977). *服飾事典*. 東京: 同文書院.